■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11-237.
http://doi.org/10.17948/kcs.2019..82.211

思菴 朴淳의 卽興詩 硏究*

유진희(劉珍熙)**

목 차

1. 서론
2. 즉흥시의 개념과『思菴集』소재 즉흥시 현황
3. 사암 즉흥시에 담긴 정서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박순의 즉흥시 속에 드러나는 그의 정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흥시는 즉흥적인 감정을 시로 옮겨낸 것이기 때문에 시인의 정서가 보다 잘 투영되어 있다. 정서는 일시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즉흥시로 개인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즉흥시가 즉흥적인 감정을 담아낸다는 것은 시의 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의 내용을 보고는 즉흥시인지 아닌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시의 제목을 이와 같이 붙였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들을 시로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시 창작의 관습상 즉흥시에는 이와 같이 제목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이 글은 2018년 2월 24일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8년 동계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본고에서는 박순의 즉흥시에 담긴 정서를 ① 자연에서 느끼는 幽興, ② 혼란한 세상에서의 불만, ③ 은거에 대한 만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폈다. 자연에서 느끼는 幽興 발현에서는 박순이 공무로 바쁜 와중에 자연에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幽興을 살펴보았다. 혼란한 세상에서의 불만 토로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은거 의식 표출에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지쳐 조용히 은거하는 삶을 편안하게 여기고 있는 박순의 내면이 시로 잘 드러나 있다.

주제어: 박순, 즉흥시, 정서, 즉흥적, 당시풍.

1. 서론

思菴 朴淳(1523-1589)는 16세기에 활동한 문인으로 조선의 시풍이 宋風에서 唐風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박순은 호남시단의 조종이며 唐風을 받아들인 訥齋 朴祥(1474-1530)의 조카로 문학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조선 唐風의 전성기를 이끈 三唐詩人, 白光勳・李達・崔慶昌의 스승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박순의 시가 뛰어났다는 사실은 諸家들의 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李恒福(1556-1618)은 박순의 諡狀에서 “타고난 격조가 맑고 고우며 생각이 깊고 뛰어나 홀로 元和의 바른 맥을 얻었다.”[1]라고 하였고, 許筠(1569-1618)은 “隆慶・萬曆 연간에 미쳐서는 思菴 相公이 盛唐의 李白을 높일 줄 알아 읊는 바가 자못 맑고 고왔다.”[2]라고 하였으며, 申欽(1566-1628)은 “그의 문장에 대하여 말하기를 맑고 깨끗하였고 시는 더욱 놀라워 唐詩를 힘써 좇았다.”라고 하였다.[3] 이로 보아 당대의 諸家들은 박순이 唐詩를 좇아 창작하였고, 그 경지가 뛰어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순의 시문학에 대한 학위논문은 석사 논문 4편, 박사 논문 1편이 있다. 김성년, 임방연, 엄상준, 이재숙의 논문[4]은 박순의 전체적인 시세계를 조망

1) 李恒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朴公行狀」, 『白沙集』 卷4. “天格淸婉, 意悟冲邁, 獨得元和正派.”
2) 許筠, 「蓀谷集序」, 『惺所覆瓿藁』 卷5. “逮在隆・萬間, 思菴相知尊盛李, 所詠頗淸邵.”
3) 李選, 「思菴朴公行狀」, 『芝湖集』 卷10. “玄翁論其文章曰, 淸邵淡潔, 詩尤警發, 力追李唐.”
4) 김성년, 「思菴 朴淳의 詩世界」,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1; 임방연, 「思菴 朴淳의 詩文學 硏究」,

하고 있으며 김찬동의 논문[5]은 박순의 시 가운데 당시풍 시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송렬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6]에서 조선조 초기 학당의 변모양상을 특징에 따라 국초의 학당, 15세기 후반의 학당, 16세기 초반의 학당, 16세기 후반의 학당으로 나누어 살폈다. 그중 16세기 후반의 학당에서 삼당시인에 앞서 학당에로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인물로 박순과 이후백을 들고 있다. 박순은 그 작품에서보다는 오히려 삼당시인 모두에게 학당의 길을 열어준 선도자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순의 시문학과 관련된 학술지 논문은 총 6편이 발표되었다. 이 중 박순 시의 典故에 대하여 논한 김신중의 논문[7] 1편을 제외한 5편은 모두 박순의 唐風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임방연의 논문[8]은 그의 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으로 박순의 시 전반을 살핀 논문이다. 박순의 문학적 배경을 먼저 살핀 뒤, 시세계의 특징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박순의 문학사적 위치를 비정하였다. 박해남은 그의 논문[9]에서 사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무렵에 박순은 그들을 새로운 무대에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학적인 새로움을 추구하여 당풍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당대 文衡의 자리에서 중국의 문학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힘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학당의 흐름으로 나아갔다고 보았다. 김갑기는 목릉문원의 문풍과 박순의 문학관을 살폈으며 박순 시의 양면성을 덜 가신 앙금과 청소한 시풍으로 나누어 살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박순의 문학사적 위상을 '漢文唐詩'의 문풍 개변기에 '학당 문풍을 솔선·훈도함'으로 교량적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보았다.[10] 김종서는 박순과 호남시단, 당풍을 살핀 뒤 박순 시의 풍격 특성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엄상준, 「思庵 朴淳의 詩世界」,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1997; 이재숙, 「思菴詩 硏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98.

5) 김찬동, 「思庵 朴淳의 "唐詩風" 詩에 관한 硏究」,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6) 전송렬, 「조선조 초기 학당의 변모양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1.

7) 김신중, 「思庵의 生涯와 思庵詩의 典故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 제1집, 한국시가문화학회, 1993.

8) 임방연, 「思庵 朴淳의 詩文學 硏究」, 『한문교육연구』 제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2.

9) 박해남, 「思菴 朴淳의 文學 硏究—朝鮮 中期 唐風 등장의 배경과 관련하여—」, 『반교어문연구』 제16집, 반교어문학회, 2004.

10) 김갑기, 「穆陵文苑의 學唐과 詩的變移—思庵 朴淳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문화』 제29집, 한국

을 '淸邵'를 중심으로 살폈으며,[11] 박병익은 박순이 당풍의 시를 창작하게 된 동인을 '聖賢之道'라는 전범을 바탕으로 '시중지도'라는 실천 태도를 가졌던 그의 사유관에서 살폈다. 또 박순의 당시풍 양상을 시어와 표현, 그리고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살폈다.[12]

이처럼 박순의 시에 관한 연구는 唐詩風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박순의 즉흥시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박순이 唐風을 추종했던 만큼 즉흥시에서도 唐風의 특징이 나타나기는 하나, 본고에서는 박순의 唐風이 아닌 즉흥시의 즉흥성과 그 속에 드러난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흥시는 오랜 시간의 彫琢이나 練磨를 거치지 않고 시흥을 느낀 현장에서 즉시 창작하기 때문에 작가의 문학적 역량이 있는 그대로 표면에 드러나는 양식이기도 하다.[13] 박순은 즉흥시의 현장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거나 즉흥시를 연작시로 창작하였다. 이러한 즉흥시를 통해 박순의 시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다. 즉흥시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즉자적인 감정을 시로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짧고 함축성이 강한 絶句가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박순의 즉흥시도 90%가량이 절구로 창작되었다.

즉흥시는 즉흥적인 감정을 시로 옮겨낸 것이기 때문에 시인의 정서가 보다 잘 투영되어 있다. 순간적으로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고뇌를 통하여 얻어지는 깊이 있는 사고는 아니다. 그렇지만 즉흥시에서 읽어낼 수 있는 화자의 생각이나 감상은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서는 일시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즉흥시로 개인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본고에서는 즉흥시에 드러난 박순의 정서를 ① 자연에서 느끼는 幽興, ② 혼란한 세상에서의 불만, ③ 은거에 대한 만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상문화학회, 2005.

11) 김종서, 「思菴 朴淳 시의 風格 特性—淸邵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19집, 한국시가학회, 2005.

12) 박병익, 「思菴 朴淳의 唐詩風 受容과 展開樣相」, 『한국한시연구』 제14호, 한국한시학회, 2006.

13) 윤재환, 「龍洲 趙綱의 詩文學 世界—卽興詩를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제54집, 2013, 36면. 즉흥시에 관한 연구는 윤재환에 의해 이루어졌다. 윤재환은 이 논문에서 조경의 시문학 세계를 살핀 뒤, 즉흥시를 통해 조경 시의 정서를 살펴보았다.

2. 즉흥시의 개념과『思菴集』소재 즉흥시 현황

즉흥시는 즉흥시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자리에서 느낀 즉흥적인 감정을 시로 옮긴 것이다. 卽興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흥치를 말한다. 이 흥치를 시로 옮기는 것이 즉석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특정한 상황이나 자리에서 느꼈던 감정을 시로 옮긴다는 것이다. 이처럼 즉흥시는 특정 상황을 포착하여 시로 옮겨내기 때문에 현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흥시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생각과 감정으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贈詩나 送別詩는 즉흥적으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증시나 송별시에 나타나는 즉흥성은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목적성이 두드러진다. 이 때문에 증시와 송별시는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즉흥시와는 차이가 있다.

즉흥시가 즉흥적인 감정을 담아낸다는 것은 시의 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의 내용을 보고는 시가 즉석에서 시로 옮겨진 것인지 한참 뒤에 여러 차례 퇴고를 거쳐 시로 옮겨진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어떤 대상을 통해 촉발되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시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후에 시로 옮긴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의 제목을 이와 같이 붙였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들을 시로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시 창작의 관습상 즉흥시에는 이와 같이 제목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목으로 즉흥시를 분류하였다.

〈표 1〉『思菴集』소재 즉흥시 제목별 분류

제목 / 권수	有感		口號		偶吟		感興		漫興		感遇		漫成		偶成		소계
1	7제 11수	9제 11수	1제 1수	7제 8수	5제 5수		1제 2수			1제 4수	1제 1수			1제 2수		1제 1수	34제 46수
2	2제 2수		3제 5수	2제 2수	1제 1수		5제 8수		1제 1수								14제 19수
3	2제 2수			1제 1수													3제 3수
소계	11제 15수	9제 11수	4제 6수	10제 11수	6제 6수		6제 11수		1제 1수	1제 4수	1제 1수			1제 2수		1제 1수	51제 68수

〈표 1〉은『思菴集』소재 즉흥시를 제목별로 분류한 것이다. 각 제목별로 왼쪽 칸은 제목 그대로가 시제(詩題)인 시이고, 오른쪽 칸은 제목이 시제의 일부로 포함된 시를 의미한다.「有感」은 15수가,「感興」은 11수가 같은 제목으로 지어졌음을 볼 수 있다.[14] 같은 제목으로 여러 수가 지어진 것도 즉흥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시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목을 만들지 못하고 같은 제목이나 비슷한 제목을 붙여버린 것이다.

각 제목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제목들을 왜 즉흥시로 분류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제들은 '感'이 중심이 되는 류와 '漫', '偶'와 같은 부사가 붙은 류, 그리고 '口號'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有感」·「感興」·「感遇」는 느끼는 것이 있어서 지었다는 의미이다. 이 시제들은 '感'이 중심이 되는 류로 어떤 감정이 느껴져서 지었다는 점이 중점적이다. 즉흥시가 즉흥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시이기에 무엇인가를 매개로 감정이 촉발되어 지은, '感'이 중심이 되는 류의 시를 즉흥시로 분류할 수 있다. 감정은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동요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흥성이 나타난다.

'漫', '偶'와 같은 부사가 붙은 류는 즉흥시의 즉흥성에 중심을 둔다.「漫興」과「漫成」에서 '漫'은 '괜히', '그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괜한 흥이 일어서 혹은 그냥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偶吟」·「偶成」은 '우연히 읊다', '우연히 짓다'라는 뜻으로 시를 지으려고 마음을 써서 지은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이 일어나 짓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냥, 우연히 지었다는 자체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口號」는 글자 그대로 보면 입으로 읊조린다는 뜻이다. '口號' 류는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의 두 부류와는 차이를 가진다. 시를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읊조렸다는 것은 많은 과정을 생략하고 생각나는 대로 지었다는 것이다. 물론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은 입으로 읊은 것을 다시 글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14) 박순의 즉흥시는 같은 제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만 제시하는 경우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같은 제목으로 여러 수가 등장하는 경우에 문집에 실린 순으로 번호를 붙여 표시하도록 하겠다.

서 수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 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애초에 즉흥적으로 지었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다.

박순 즉흥시의 특징 중 하나는 연작시 형식의 즉흥시가 포착된다는 점이다. 시의 제재가 분명하여 개별 작품 간의 연관성이나 통일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四時詞나 詠物詩 같은 경우 연작시의 형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즉흥시는 개인이 한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시로 옮기는 것으로, 한 제목의 여러 시에서 같은 감정과 시선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작시로 지었을 경우 작품의 독자적인 완결성을 가지기 어렵다.[15] 그러나 박순의 즉흥시는 12제 29수가 연작시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수 연작이 9편, 3수 연작이 1편, 4수 연작이 2편이다. 2수 연작으로 즉흥시를 짓는 것은 다른 시인들의 시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지만 3수 연작이나 4수 연작으로 즉흥시를 짓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 이처럼 박순은 적지 않은 수의 즉흥시를 연작시로 창작하였다. 또 개별 작품에서 보이는 정서도 모두 일관된 것이다. 이는 박순의 시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른 시인들이 여러 수로 구성된 연작시에서 감정을 균일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면 박순은 순간적인 감흥을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하며 연작시로 담아냈기 때문이다.

즉흥시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시로 옮기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시인의 감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즉흥시에 드러나는 감상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지만 이 생각이나 감정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즉흥시에서는 대상에 대한 작가의 보다 진솔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思菴集』 소재 박순의 즉흥시를 형식적으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思菴集』 소재 즉흥시 형식별 분류

형식	5언절구	5언율시	7언절구	7언율시	7언고시	소계
수	9제 10수	4제 4수	34제 50수	3제 3수	1제 1수	51제 68수

15) 윤재환, 앞의 글, 42면.

〈표 2〉는『思菴集』에 수록된 박순의 즉흥시를 형식별로 분류해 본 것이다.『思菴集』에 실린 박순의 즉흥시는 총 51제 68수이다. 이는 박순 시 전체 606수 가운데 11% 정도이다. 박순의 즉흥시 중 43제 60수가 절구로 지어졌는데, 이는 즉흥시의 90%가량 되는 분량이다. 이처럼 박순이 대부분의 즉흥시를 절구로 창작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는 즉흥시의 성격 때문이며, 둘째는 박순이 唐詩風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박순은 대부분의 즉흥시를 절구로 창작하였다. 박순이 기본적으로 절구를 많이 창작하기는 하였으나 즉흥시를 지을 때는 유독 절구를 선호하였다. 절구가 율시보다 호흡이 짧아,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개인의 정서를 담아내기에 적절하였을 것이다.[16]

박순의 즉흥시는 당시 문인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는데『淸江先生鯸鮧瑣語』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지럽게 흐르는 시냇물 들을 지나 강으로 들고
> 물방울은 난간 너머 가지에 매달렸는데
> 울타리에 도롱이 걸고 처마에 그물 말리는
> 저 멀리 어부 집에는 석양이 짙어지네
>
> 亂流經野入江沱, 滴瀝猶存檻外柯.
> 籬掛簑衣簷曬網, 望中漁屋夕陽多.[17]

이 시는 박순의 즉흥시로 잘 알려져 있는 시로, 소나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에 석양이 짙게 깔린 풍경을 보고 지은 시이다.『淸江先生鯸鮧瑣語』에는 書堂의 학사들이 이 풍경을 보고 다 같이 시를 지은 뒤에 박순의 이 시를 보고 소리 나는 그림이라고 탄미했다고 하였다.[18] 박순의 즉흥시는 당대의 문인들에게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자

16) 같은 글, 44면.
17) 朴淳,「湖堂口號」,『思菴集』卷1.
18) 李濟臣,「淸江先生詩話」,『淸江先生鯸鮧瑣語』.“書堂學士輩, 嘗於一日驟雨過後, 夕陽鮮明, 晴景可人, 共賦詩以記之, 朴淳詩曰, ‘亂流經野入江沱, 滴瀝猶殘檻外柯. 籬掛蓑衣簷曝網, 望中漁屋夕陽多.’ 諸公歎美, 以爲眞有聲之畫.”

들은 난삽하고 껄끄러운 어휘나 험벽한 전고의 인용 없이 평이한 시어로 이루어진 제화시를 보는 듯하다고 평가하고 있다.[19] 또 김찬동은 박순의 시 가운데 시적 완성도가 높은 시들은 즉흥적으로 지은 시들이라고 평한 바 있다.[20]

3. 사암 즉흥시에 담긴 정서

즉흥시는 대상을 통해 촉발된 즉흥적인 감정을 시로 옮겨낸 것이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지만 이것은 박순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생각이나 감정은 진지한 고민이나 오랜 생각 끝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촉발되는 것이다. 또한 정서는 일시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즉흥시로 개인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박순은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들을 시로 담아냈다. 그 감정들은 박순이 처하는 상황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박순은 벼슬을 하는 와중에 자연을 감상하며 공무에서 느끼는 피로를 幽興으로 해소하였다. 그러나 벼슬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혼란한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불만 섞인 목소리로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한 뒤에 지은 시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상이 박순의 삶에서 차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강도에 따라 다른 정서를 드러낸다.

박순의 즉흥시에 드러난 정서가 여타의 문인들의 그것과 내용상의 큰 변별적 특징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순은 즉흥시의 현장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거나 즉흥시를 연작시로 창작하여 시적 역량을 발현하였다. 이런 점에서 여타 문인들의 시나 박순의 일반적인 시들과는 다른 즉흥시의 차별적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

19) 김찬동 앞의 글; 박해남, 앞의 글; 박병익, 앞의 글; 김종서, 앞의 글; 임방연, 앞의 글 참고.
20) 김찬동, 앞의 글, 39면.

1) 자연에서 느끼는 幽興

한가한 와중에 느긋한 흥을 찾고 즐기는 것은 즉흥시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 한가하면 무엇인가를 여유 있게 보고 느낄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공무에 지친 박순에게 자연 속에서 노니는 한가한 시간은 단꿈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박순은 그 한가로운 자연 속에서 幽興을 좇고 있다. 幽興이라고 한 것은 박순이 자연 속에서 느꼈던 그 흥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 속에 흥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성은 즉흥시 창작에서 보이는 하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박순 즉흥시의 현장성은 실제로 바라본 자연을 묘사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순은 자연을 추상적으로 그리거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면서 바라보고 감상한 것을 구체적으로 시 속에 담아내었다. 그 바라보고 감상한 자연물들을 시어에 등장시켜 시의 계절감을 더하거나 공간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 봄 강 푸른 물결 잔잔하고
> 비에 씻긴 푸른 산은 깨끗한데
> 앉아서 온갖 생각 많아지니
> 작은 배 타고 움직여 보아야겠네.
>
> 春江綠浪平, 雨洗靑山淨.
> 百慮坐悠悠, 惟宜理煙艇.[21]

이 시는 박순이 봄날의 풍경을 보고 지은 시이다. 박순은 봄날 자연을 거닐다가 봄 풍경을 묘사하고 자연 속에서 느낀 것들을 시로 담아내었다. 「偶吟」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봄날에 보고 느낀 것들을 시로 읊은 것이다. 첫 구에 등장하는 '綠浪'이라는 시어는 앞서 등장한 시어인 '春'의 계절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雨'라는 자

21) 朴淳, 「偶吟」 1, 『思菴集』 卷1.

연물을 시어에 등장시켜 봄날의 깨끗한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시어들의 사용으로 자연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강은 푸르고 잔잔하고 산은 비가 온 뒤라 푸릇푸릇하고 깨끗하다. 그러나 박순은 현재 이 같은 풍경에 걸맞은 봄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연 속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우울하게 쌓인 일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많은 생각들을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봄이 와서 기쁜 마음을 적극적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쌓였던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로 표현한다.

흰 모래밭에 띠를 두른 향긋한 풀
이끼 낀 바위 사이 맑은 물굽이
느린 걸음으로 마음 가는 대로 다녀도
오고 가는 것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네

明沙帶芳草, 蒼石間澄灣.
緩步惟隨意, 無人覺往還.[22]

이 시는 「感興」이라는 시이다. 제목 그대로 산보를 즐기다 감흥이 일어 지은 시이다. 감흥은 억지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동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즉흥시의 영역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明沙', '芳草', '蒼石' 등의 자연물을 시어로 등장시켜 계절감을 더하고 공간감을 더하고 있다. 이 시에는 계절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시어들을 통해 봄이라는 계절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공간의 깨끗하고 한가로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느린 걸음으로 오가며 보이는 '모래밭', '풀', '바위' 등의 자연물들을 차례로 등장시켜 자연의 모습을 시 속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박순은 흰 모래밭을 이리저리 거닐고 이끼 낀 바위 사이의 시내를 구경한다. 박순은 이 속에서 감흥이 생긴 것이다. 자신이 마음대로 다녀도 아무도

22) 朴淳, 「感興」 1, 『思菴集』 卷1.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조용하고 여유로운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흥을 표현하였다.

촌 늙은이가 술병을 가지고 맞아 주어
풀밭에 앉아 시내 소리를 듣자니
술 다 마시면 어디로 가야하나
달은 띠집 처마로 들어 온 책상에 고루 비추겠지

野老相邀挈瓦甁, 坐因芳草聽溪聲.
此身飮罷歸何處, 月入茅簷一榻平.[23]

이 시는 마을의 늙은이와 함께 술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느낀 떠오른 것들을 시로 옮긴 것이다. 이 시도 자신이 직접 자연 속에서 즐기는 상황들을 시로 옮겨내었다. 이 시에는 '芳草', '月' 등의 자연물이 등장한다. 이 시에서 자연물들은 한가롭고 여유로운 공간의 느낌을 더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순은 향긋한 풀 내음이 가득한 공간에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마을의 노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 술을 다 마신 뒤에는 달빛이 드는 방안의 책상 앞에 앉겠다고 하였다. 박순은 노인과 술을 마시고 있지만 술에 취하여 흥을 분출시키지는 않는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공간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그 속에 자신의 흥을 녹여내고 있다.

공무 중에 짬만 나면 바삐 마을을 나서니
푸른 산은 그림 같고 저물녘 강은 긴데
꽃은 분명히 깊은 오솔길을 밝히고
행도의 봄바람은 십 리 향긋하네

公務纔閒出郭忙, 靑山如畫暮江長.
林花歷歷明幽逕, 行度春風十里香.[24]

이 시는 공무에 바쁜 와중에 짬이 나 마을을 나서 풍경을 보고 지은 시이

23) 朴淳, 「偶吟」 6, 『思菴集』 卷2.
24) 朴淳, 「湖堂路中口號」, 『思菴集』 卷1.

다. 박순은 공무 중에 짬이 나 마을을 거닐면서 본 풍경들과 느낀 감정들을 시로 담아내고 있다. 박순이 마을을 나서서 마주한 풍경은 그림 같은 푸른 산 앞으로 흐르는 강과 숲속에 핀 꽃들 사이로 나 있는 오솔길이다. '口號'라는 시제에서 볼 수 있듯이 박순은 마주한 봄 풍경을 본 즉시 입으로 읊어 회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박순이 풍경을 마주한 즉시 시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는 즉흥시의 면모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靑山', '江', '林花' 등의 자연물들은 박순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자연물들을 내세워 바쁘고 번잡한 일이 가득한 공관과는 다른 평화롭고 한적한 공간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박순은 마지막 구에서 봄바람을 향긋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박순이 느낀 봄이 향긋하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 구절에 박순이 느낀 흥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을 걷고 맑은 날 구경하다
처마를 돌며 떨어진 꽃을 밟는데
푸른 산은 들녘 물에 가깝고
지는 해는 어부 집에 가득하네

卷箔看晴景, 巡簷步落花.
蒼山臨野水, 落日滿漁家.[25]

이 시를 보면 박순의 감정은 거의 배제되고 박순이 바라본 풍경이 그림처럼 담겨있다. 맑은 날 풍경을 감상하다 문을 나서 처마를 돌며 보이는 광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것이다. 봄 풍경에 이끌린 박순의 우연한 발걸음이 즉흥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봄날 저물녘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풍경을 느끼는 박순의 흥은 시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발을 걷고 바깥의 풍경을 구경만 하다 문을 나서 처마를 돌며 꽃을 밟는 것은 박순이 자연을 보다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푸른 산이 맞닿아 있고 지는 해가 어부 집에 가득히 내

25) 朴淳, 「偶吟」 3, 『思菴集』 卷1.

려앉은 풍경은 박순이 방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으로 저녁의 한가로움을 한층 더 강화시키며 박순의 시야와 공간의 확장을 보여준다.

2) 혼란한 세상에서의 불만

박순은 벼슬을 하는 중에 자연을 거닐며 공무에서의 피로를 해소하기도 하였다. 그 속에서 느끼는 정서는 幽興으로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박순은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피로가 있었다. 누구나 그렇지만 삶을 살면서 만족스러운 일들만 있을 수는 없고, 자신이 사는 세상을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다. 박순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벼슬을 했기 때문에 혼란한 세상에 대한 불만은 늘 품고 있었을 것이다. 현실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박순이 보기에 현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말과 태도라고 생각했다. 눈앞의 이익을 두고 떠들면서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가 옳다고 하면서 성현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것까지 박순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말과 태도가 문제라고 여겼다. 박순의 이러한 불만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매개로 하여 즉각적으로 촉발되고 있다.

야박한 세상 이리저리 세태는 쉽게도 바뀌어
낮에는 친하다가도 저녁 되면 싸우니
세상에서는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
명예와 이익 앞에 두고 부끄러운 일 많네

薄俗紛紛雲雨手, 朝爲膠漆暮干戈.
風塵造次心腸改, 聲利前頭愧恥多[26]

아 뭇사람들 너무나 시끄럽게 떠드는데
도가 사라졌으니 누가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옛적의 성현들은 모두 백골이 되었고
찌꺼기만 책 속에 남아있네

26) 朴淳, 「讀嵇中散絶交論, 有感.」, 『思菴集』 卷1.

嗟嗟羣動苦喧闐, 道喪誰能更斡旋.
從古聖賢皆白骨, 只留糟粕在靑編.[27]

위의 두 수는 박순이 책을 읽고 느낀 감상을 시로 옮긴 것이다. 박순이 느끼는 혼란한 세상에 대한 불만은 책을 매개로 촉발되기도 한다. 책을 읽고 느낌 감상이기 때문에 '有感'이라는 시제를 썼다. 책은 우연히 읽은 것이 아니지만 그 책을 통해 느껴진 감정은 즉흥적으로 분출된 것이다. 즉흥시가 어떤 대상을 통해 촉발되는 생각이나 감정을 시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책을 매개로 촉발된 생각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그 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수는 嵇康의 절교론을 읽고 난 후의 감상을 시로 옮긴 것이다. 죽림칠현의 한 사람이었던 山濤가 혜강을 관직에 천거하자, 혜강은 이를 거절하면서 산도에게 절교서를 보냈다. 혜강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과 박순이 사는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이라고 느낀 박순은 이 시를 지어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박순은 이 시에서 세상이 쉽게 바뀌는 세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박순은 오랜 시간 벼슬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세태를 더 자주 마주했을 것이다. 낮에는 친하게 지내다가도 저녁이 되면 적이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쉽게 바뀌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명예와 이익을 앞에 두고는 수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였다. 혜강이 명예와 이익을 은거하는 자신의 삶보다 못하다고 여겨 자신을 천거한 친구에게 절교서를 보낸 것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박순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불만을 그 자리에서 시로 지어 풀어내고 있다.

두 번째 시 역시 「讀書有感」이라는 제목으로 보아 역시 책을 읽고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박순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아 성현의 책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도 박순은 이 책으로 촉발된 생각을 시로 담아내었다. 이 시에서는 도를

27) 朴淳, 「讀書有感」, 『思菴集』 卷1.

이어갈 사람은 없고 너도나도 시끄럽게 떠드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박순이 보기에 성현들이 생각하고 실천했던 도는 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현들 그 자체였다. 예부터 도를 이어온 성현들은 없고 찌꺼기인 책만 남았는데 그것을 두고 자신이 옳다고 떠들어 대는 여러 학자들의 모습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가 있었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혼란스러움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진창이 많아
돌아와 온통 구름 낀 언덕에서 자네
어찌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 있겠나
혀가 탈 듯 탄식을 하네

世路多泥濘, 歸眠一塢雲.
焉能隨衆口, 嗟咄舌如焚.[28]

이 시는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였을 때 지은 시인 듯하다. 박순은 진창을 피해 구름 낀 언덕에 누운 자신의 상황을 매개로 촉발된, 은거한 자신의 상황과는 대조되는 혼란한 세상에 대한 불만을 그 자리에서 읊어낸 것이다. 이 시에서 박순은 험난했던 자신의 벼슬길을 진창이라고 표현하였다.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이 너무나 고되어 구름 낀 언덕으로 돌아왔다. 구름 낀 언덕은 진창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자신이 갈망하던 조용한 공간이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을 다 따르지는 못한다.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시비를 논하는 등 박순을 구설에 올리는 일이 잦았을 것이다. 이런저런 말이 많은 그 공간이 바로 1구에서 말한 진창이다. 박순은 자신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을 보며 혀가 탈만큼 혀를 끌끌 차면서 탄식을 한다. 이런저런 말만 많은 세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의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미 관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시로 옮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28) 朴淳, 「口號」 1, 『思菴集』 卷1.

노나라 들에 기린 떠나려하고
주나라 산에 봉황 오지 않으니
문장도 끝이 나
천지에서 홀로 배회하네

魯野麟將去, 周山鳳不來.
文章嗟已矣, 天地獨徘徊.[29]

이 시에서 드러나는 세상에 대한 불만은 「讀書有感」에서 본 것과 유사하다. 혼란한 상황에 대해 과거 성현들이 살았던 시대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여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노나라에 기린이 떠나고 주나라에 봉황이 오지 않는 상황은 모두 도가 사라진 상황으로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말로 떠드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진정으로 도를 이어갈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장도 끝이 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홀로 천지를 배회해보아도 도가 사라지고, 문장이 끝이 났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위의 시들을 보면 박순은 내실 없이 이리저리 시끄럽게 떠들면서 태도를 바꾸는 혼란한 세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모함 받던 정치 생활에서나 도가 사라진 현실에서나 근거 없는 말로 떠들어 혼란만 가중시키는 인물들을 불만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박순은 특정 상황이나 대상을 매개로 촉발된 이러한 불만들을 가감 없이 토로해내고 있다.

3) 은거에 대한 만족

어떤 사람이 은거를 꿈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정치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박순은 31세에 벼슬을 시작하여 64세에 관직을 버리고 永平에 은거하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을 벼슬을 하였다. 박순의 관직생활은 비교적 평탄하였다. 39세에 弘文館應敎로 있을 적에 林百齡의 시호를 '昭恭'이라고 폄하하여 지은 것이 문제가 되어 파출되는 일이 있었으나 그해 겨울 다시 韓山郡守로 부임하였다. 1585년에 鄭汝立의 무리가 李珥・成渾・박순을 엮

29) 朴淳, 「偶吟」 2, 『思菴集』 卷1.

어 붕당의 무리로 지목하고 박순이 그 우두머리라고 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었으나 선조가 탄핵을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박순은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러한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박순은 굴곡진 벼슬살이를 하지는 않았다. 평소에는 공무에 지친 마음을 조용하고 잔잔한 자연 속에서 풀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박순은 오랜 시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그것을 불만 섞인 목소리로 토로하였다. 이 때문에 박순이 은거를 하고 난 뒤에 지은 시에서는 은거에 대한 만족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노년에는 탄핵 등의 사건이 있었고 오랜 벼슬살이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은거한 뒤의 만족감이 더 커졌을 것이다.

박순 즉흥시의 특징 중 하나는 연작시 형식의 즉흥시가 포착된다는 점이다. 박순의 즉흥시는 2수 연작이 9편, 3수 연작이 1편, 4수 연작이 2편이다. 2수 연작으로 즉흥시를 짓는 것은 다른 시인들의 시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지만 3수 연작이나 4수 연작으로 즉흥시를 짓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 즉흥시는 개인이 한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데, 한 제목의 여러 시에서 같은 감정과 시선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작시로 지었을 경우 작품의 독자적인 완결성을 가지기 어렵다.[30] 그럼에도 박순은 적지 않은 수의 즉흥시를 연작시로 창작하여 시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박순의 즉흥시 가운데 3수 연작시 1편[31]과 4수 연작시 2편은 모두 은거에 대한 만족감을 담고 있다. 다른 시에서도 은거를 의식하고 있기는 하나, 3, 4수의 연작시가 모두 은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고에서는 4수 연작시 두 편으로 박순의 은거에 대한 만족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듣자니 기리계는 유씨를 편하게 했고
> 또 들으니 방덕공은 녹문산에 숨었다는데

30) 윤재환, 앞의 글, 42면.

31) 朴淳, 「感興」 8, 『思菴集』 卷1. “月弦西陸蟲催咽, 秋冷空樑燕暫依. 漢上老翁猶臥病, 漫教歸楫已生衣. / 鵬鷃逍遙俱足矣, 雞蟲得失兩忘之. 秋田已穫歸休懶, 正是山中酒熟時. / 德公劉表是誰安, 蚊睫天池各自寬. 馬首秋山如待我, 尖頭遙看白雲冠.”

벼슬하고 물러나는 것 모두 꿈과 같지만
백운이 오히려 절로 청운보다 낫네

曾聞綺季安劉氏, 復道龐公隱鹿門.
料得行藏都是夢, 白雲猶自勝靑雲.

한 해 끝 깊은 산에 이리와 범 기승을 부려
사립문 닫고 누워서 책을 보며
벗에게서 소식 한 자 없다고 한하지 않으니
내가 이곳에 온 것도 조용히 살기 위해서라네

深山歲暮驕豺虎, 反鎖荊門臥看書.
不恨故人無一字, 我來都爲寂寥居.

매복 같은 은리 되기 어렵고
사공 배운 산 유람도 아니어서
병 많은 제 한 몸 산골짝에 살 뿐이지만
옥피리 불고 책 읽으며 문을 닫았네

難追隱吏同梅福, 不是遊山學謝公.
多病自成棲一壑, 玉琴黃卷閉門中.

주려서 산나물 캐며 세월을 견디면서
이 마음 편안한 곳에 남은 생을 붙이나
끝없는 무덤의 풍경을 논한다면
인간 세상 만석 고관 다 필요 없지

飢採山蔬堪度歲, 此心安處着殘生.
若論馬鬣無邊景, 還失人間萬石卿.[32]

이 시는 언제 지어진 시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두 번째 수의 마지막 구를 보면 박순이 조용히 살기 위해 은거했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이 시는 박순이 노년에 永平縣으로 물러나면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다. 박순은 은거하여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문득 느끼는 것이 있어 시로 옮겨 내었다. 4수는 모두 은거에 대한 일관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박순

32) 朴淳, 「感興」 2, 『思菴集』 卷2.

은 전고를 인용하거나 현재 자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적절히 배열하여 은거에 대한 자신의 만족감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는 전고를 사용하여 은거에 대한 만족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수에서는 진나라 때 혼란을 피해 상산으로 은거했던 상산사호의 한 사람인 綺里季와 한나라 때 녹문산에 숨어살았던 龐德公을 끌어와서 자신이 가진 은거의 뜻을 밝히고 있다. 기리계는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뒤에 출사하여 유방을 도왔지만 방덕공은 劉表가 불러들였음에도 다시 벼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은거하고 출사한 행적이 다르지만 출사하고 물러나는 것은 모두 꿈같은 일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출사하여 관료의 삶을 사는 것 보다는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는 편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 수에서는 두보 시의 "은리로 매복을 만나보고, 산을 유람해서는 사령운을 기억하네(隱吏逢梅福, 遊山憶謝公.)"[33]라는 구절을 따와 자신의 은거 의식을 드러냈다. 두보가 매복을 만나보고 사령운을 생각했던 것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산속에 은거할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병이 들어서 골짜기 외딴 집에 은거하지만 그 속에서 책도 읽고 피리도 불며 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박순은 기리계와 방덕공의 고사 인용과 두보의 시구 인용을 통해 자신의 은거 의식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즉흥시에 이처럼 고사를 사용하는 것은 박순의 시적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수에는 즉흥시의 즉흥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 이 시에는 깊은 산속에 집을 짓고 조용히 은거한 박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구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은'이라고 박순이 현재 이 시를 짓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이리와 범은 단순히 산중에 사는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함했던 무리들을 말한다. 노년에 정여립의 무리에게 모함을 받아 탄핵 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박순은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해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였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박순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적이 잘

33) 杜甫, 「送裴二虬尉永嘉」, 『杜詩詳註』 卷3.

닿을 수 없는 곳이라 친구들의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다. 그래도 박순은 이 삶이 본인이 조용히 살고자 택한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

네 번째 수에서는 박순이 은거하여 남은 생을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박순은 굶주려 산나물을 캐어 배를 채우고 있지만 은거한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지금 산나물을 캐 먹고 있지만 인간 세상의 만석고관도 부럽지 않다. 자신이나 만석을 받는 고관대작이나 죽어서는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박순은 은거하여 소박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편안히 여기고 있다. 일평생 관직에 있다가 물러나면서 은거하는 삶이 만족스러운 것이다.

두보는 술을 좋아했지만 너무나 돈이 없어
취하여 자기 위해 솔부에 들어 소요하였으니
돌아보면 내가 아직 내려오는 녹을 받을 수 있었다 해도
어찌 봄이 가는데 홀로 술 깬 축에 끼어 있으랴

杜陵耽酒苦無錢, 率府逍遙爲醉眠.
顧我尙能霑賜俸, 如何春去獨醒邊.

무수한 복사꽃은 가는 곳마다 무성해
사람마다 취한 채 봄바람에 답하는데
나는 이제 늙고 게을러 잠자고 싶은 생각뿐이니
짙붉은 꽃 연붉은 꽃 어울려 있어도 상관하지 않네

無數桃花著處穠, 人人扶醉答春風.
吾今老懶惟思睡, 遮莫深紅映淺紅.

날리는 버들개지와 지는 꽃은 푸른빛을 보내오는데
병 많아 오래도록 외로운 것 절로 가여우니
임금이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것 허락하지 않았지만
강가의 늙은 객성이 되었네

飛絮殘花又送靑, 自憐多病久伶俜.
君恩未許歸篷篴, 且作江邊老客星.

떠들썩한 나비와 벌 꽃은 활짝 피었고
성 가득 음악 소리 봄은 무르익었는데

지금까지 양자를 그리 비웃어놓고
조용히 문닫고 홀로 현묘함도 꿈꾸네

蝶咽蜂喧花正燃, 滿城歌吹趁春天.
從來最可嘲楊子, 閉戶寥寥獨尙玄.[34]

이 시는 「春日漫興」이라는 제목의 4수 연작의 즉흥시이다. 이 4수에서도 은거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뚜렷하고 일관적으로 드러난다. 이 시도 박순이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했을 때에 지은 시이다. 세 번째 수의 셋째 구에 임금의 은혜에도 응하지 못하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제로 선조는 박순이 관직을 그만둔 뒤에 세 차례나 서울로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박순은 돌아가지 않았다. 박순이 은거하고자 했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지쳐 조용히 은거하는 삶을 편안하게 여기고 있는 박순의 내면이 시로 잘 드러나 있다.

이 시에서는 4수에서 모두 같은 구도로 은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시의 배경과 박순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특기할 만하다. 시의 배경은 전체적으로 봄날의 활기차고 따스한 모습이다. 하지만 박순의 태도는 봄날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4수에서 모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조용한 곳으로 숨고 싶어 하는 박순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수는 두보가 率府의 벼슬을 얻은 후에 지은 시인 「官定後戲贈」[35]의 내용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다. 두보는 술을 좋아했지만 술을 살 돈이 없어 벼슬을 하게 되었다. 벼슬을 하고 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즐거움이 끊겨 아쉬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바람만 바라보게 되었다. 두보는 이 아쉬운 마음을 술로 달래며 취한 채 잠들 수 있게 되었다. 박순은 지금 벼슬을 그만두었지만 녹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해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만 품고 좋은 봄을 고향에서 보내지 못한 아쉬움을 술로 달래려고 했을 것이라고

34) 朴淳, 「春日漫興」, 『思菴集』 卷1.
35) 杜甫, 「官定後戲贈」, 『杜詩詳註』 卷3. "不作河西尉, 凄凉爲折腰, 老夫怕趨走, 率府且逍遙. 耽酒須微禄, 狂歌託聖朝. 故山歸興盡, 回首向風飄."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시는 무성한 복숭아꽃을 취한 채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은 시이다. 좋은 봄날이지만 박순은 그들과 함께 봄날을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저 지친 몸을 이끌고 잠들고 싶은 생각뿐이다. 남들은 놀고 취하는 봄이지만 박순은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이다. 마지막 구에서는 붉은 꽃들이 여기저기 어우러져도 상관하지 않는다며 봄날의 풍경에 미련을 갖지 않고 푹 쉬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수에서는 버들개지가 날리고 꽃이 지면서 여름이 오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속에서 박순은 임금이 몇 차례나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핑계하여 나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늙어서 은거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시로 담아내었다.

네 번째 수에서도 봄을 맞아 피어난 꽃과 그 주위를 나는 벌과 나비를 보여주면서 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성에 가득한 피리 소리와 노랫소리는 봄이 무르익은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박순은 봄을 즐기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내는 것이다. 평소에는 양웅이 현묘함을 높이던 것을 우습게 여겼지만 지금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홀로 은거하며 현묘함도 꿈꿔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봄이라는 좋은 계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보다 은거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

4. 결론

본고는 박순의 즉흥시를 살펴 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박순 시의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박순이 三唐詩人의 스승으로 唐風을 수용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은 익히 지적되었다. 박순이 절구를 유독 많이 지은 것도 당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순의 즉흥시는 더욱 심한 절구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박순이 당풍의 영향을 받아 절구로 시를 많이 지은 것에서 기인하기도 하나, 순간적인 감상을 시로 담는 즉흥시의 특성상 편폭이 짧은 절구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다.

『思菴集』 소재 즉흥시는 박순 시 전체의 11% 정도의 분량이다. 이는 즉흥시라고 볼 수 있는 제목들을 8개의 제목군으로 추려서 추출한 것이다. 시의 내용을 보고는 즉흥시인지 아닌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의 제목에서 순간적인 감흥에 이끌려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즉흥시를 뽑아내었다. 시의 제목을 이와 같이 붙였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들을 시로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시 창작의 관습상 즉흥시에는 이와 같이 제목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즉흥시로 분류된 시들에는 박순의 정서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① 자연에서 느끼는 幽興, ② 혼란한 세상에서의 불만, ③ 은거에 대한 만족의 셋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정서는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순은 벼슬을 하는 와중에 자연을 감상하며 공무에서 느끼는 피로를 幽興으로 해소하였다. 그러나 벼슬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혼란한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불만 섞인 목소리로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한 뒤에 지은 시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자연에서 느끼는 幽興'은 박순이 실제로 자연을 거닐며 느끼는 여유로움 속에서 발현된다. 자연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성은 즉흥시 창작에서 보이는 하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박순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은 터져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한가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 흥이 자연스럽게 갈무리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에서 나타난 자연물들은 그 공간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박순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혼란한 세상에서의 불만' 토로는 특정 상황이나 대상을 통해 촉발되어 나타난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말과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도를 무너뜨리는 모습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박순의 이러한 불만은 책이나 자신의 상황을 통해 촉발되고 있다.

'은거에 대한 만족'은 박순의 4수 연작시 두 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4수 연작시 두 편에서는 모두 박순의 은거에 대한 만족감이 일관적으로 드

러난다. 즉흥시의 연작시에서는 개인이 한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순은 같은 시선과 구도를 유지하여 시를 창작하였다. 박순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때문에 박순이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하면서 지은 시에는 은거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지쳐 즐기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박순의 의식이 잘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박순의 즉흥시를 통해 그의 정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즉흥시는 즉흥적인 감정을 시로 옮겨낸 것이기 때문에 박순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특정 대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어떤 감상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생각과 감상은 진지한 고뇌에 의한 깊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순의 즉흥시에 드러난 정서가 여타 문인들의 그것과 내용상의 큰 변별적 특징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순은 즉흥시의 현장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거나 즉흥시를 연작시로 창작하여 시적 역량을 발현하였다. 이런 점에서 여타 문인들의 시나 박순의 일반적인 시들과는 다른 즉흥시의 차별적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杜詩詳註』.

朴 淳,「思菴集」,『韓國文集叢刊』38, 민족문화추진회.
李 選,「芝湖集」,『韓國文集叢刊』143, 민족문화추진회.
李廷龜,「月沙集」,『韓國文集叢刊』69, 민족문화추진회.
李濟臣,「淸江先生鯨鯖瑣語」,『大東野乘』, 민족문화추진회.
李恒福,「白沙集」,『韓國文集叢刊』62, 민족문화추진회.
許 筠,「惺所覆瓿藁」,『韓國文集叢刊』74, 민족문화추진회.

김갑기,「穆陵文苑의 學唐과 詩的變移—思庵 朴淳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제2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7-38면.
김성년,「思菴 朴淳의 詩世界」,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1.
김신중,「思庵의 生涯와 思庵詩의 典故에 대하여」,『한국시가문화연구』제1집, 한국시가문화학회, 1993, 73-99면.
김종서,「思菴 朴淳 시의 風格 特性—淸部를 중심으로—」,『한국시가연구』제19집, 한국시가학회, 2005, 185-223면.
김찬동,「思庵 朴淳의 "唐詩風" 詩에 관한 硏究」,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박병익,「思菴 朴淳의 學唐風 受容과 展開樣相」,『한국한시연구』제14호, 한국한시학회, 2006, 101-133면.
박해남,「思菴 朴淳의 文學 硏究—朝鮮 中期 唐風 등장의 배경과 관련하여—」,『반교어문연구』제16집, 반교어문학회, 2004, 91-112면.
엄상준,「사암 박순의 시세계」,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1997.
윤재환,「龍洲 趙絅의 詩文學 世界—卽興詩를 中心으로—」,『동방한문학』제54집, 2013, 31-59면.
이재숙,「思菴詩 硏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98.
임방연,「思菴 朴淳의 詩文學 硏究」,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_____,「思庵 朴淳의 詩文學 硏究」,『한문교육연구』제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2, 217-256면.
전송렬,「조선조 초기 학당의 변모양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1.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CD-ROM),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0.

【Abstract】

The Study on Sa-am Park Soon's Impromptu Poems

Yoo, Jin-Hee*

This paper aims to confirm Park Soon's emotion through his Impromptu Poems. Impromptu Poems moved emotional feelings into poetry. So it can better reflect the personal emotion. Emotion is a strongly conscious sentiment for a short time. For this reason we see that it is possible to grasp the individual's emotion in Impromptu Poems.

Impromptu Poems is made with Impromptu emotions. This can be found in the title of poetry. Looking at the contents of poetry, it is difficult to grasp easily whether Impromptu Poems or not. However, the subject of poetry in this way is to show that we moved what we felt on the spot to a poem. Also, in the custom of Chinese poetry creation, Impromptu Poems is generally given a title like thi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inward consciousness contained in Impromptu Poems of Park Soon into three kinds: 1) A deep emotion that feel in nature 2) Dissatisfaction in a confused world, 3) Satisfaction with hermit. First, This paper studied the margin that Park Soon feels naturally during the busy public schedule and deep emotion felt in it. Next, Dissatisfaction in a confused world, It expresses the Dissatisfaction about the words and attitudes of people who confuse the world. Lastly, Satisfaction with hermit, Park Soon is tired of the confusing world and lives quietly hiding. His inward consciousness which seems to have a comfortable life is shown in poetry.

Keywords: Park Soon, Impromptu Poems, Emotion, impromptu, The style of Tang Poetry.

접수일: 2019.01.02. ‖ 심사일: 2019.01.09. ‖ 게재확정일: 2019.02.01.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ankook University.